

기독교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오윤선* 최아람**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와 SNS 중독경향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목회 및 교육현장에서 기독교대학생들을 지도와 상담할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기독교대학생 318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 문제는 SNS 중독경향성과 정적 상관이 있다. 둘째, 대인관계 문제는 SNS 중독경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의 모든 하위변인인 인정욕구, 착취 및 자기중심성, 소심 및 자신감부족,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은 대인관계 문제와 SNS 중독경향성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다. 즉, 대인관계 문제는 SNS 중독경향성에 내현적 자기애의 모든 하위변인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기독교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문제가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기독교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이 SNS 중독경향성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질적연구와 각종 프로그램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기독교대학생, 대인관계 문제, SNS 중독경향성, 내현적 자기애, 매개효과

• 논문 투고일: 2017년 3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17년 5월 5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5월 11일

* 한국성서대학교

** 한국성서대학교

I. 여는 글

관계적 존재로 창조(창 2:20-22)된 인간(人間)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평생 동안 다양한 대인관계(對人關係)를 맺으며 살아간다.¹⁾ 따라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등 모든 공동체 적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인관계라고 하겠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적응과 대인관계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스스로 고립되어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게 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인관계를 맺게 된다. 특히 최근 들어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가 SNS²⁾를 통한 소통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보급국가인³⁾ 한국에서 SNS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대인관계의 장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⁴⁾ 우리는 인

-
- 1) 강경미, “기독교상담과 한국인의 대인관계문화”,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5권(2008): 181.
 - 2) SNS란 Social Network Service의 줄임말로 웹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여 기존의 대인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새로운 대인관계를 만들어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SNS는 서로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유형과 사용자가 자신의 관심사에 관련하여 글이나 사진, 의견 등을 올리는 1인 미디어 유형, 마이크로 블로그 형태로 140-160자 내외로 짧게 글을 쓰거나 사진, 동영상을 올려서 자신의 생각을 올리는 유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윤희, “국내 SNS의 이용 현황과 주요 이슈 분석”, 한국인터넷진흥원, 「Internet & Security Focus」 제4권(2014): 57-58.
 - 3) 세계 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세계 모바일 회선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51%에 달하고,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85%를 넘어서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급률을 보였다. 한지훈,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첫 50% 돌파...한국은 85%”, 「연합뉴스TV」 (2017년 2월 8일자), 2017년 3월 3일 접속, <http://www.yonhapnews.co.kr>.
 - 4) 미래 창조 과학부에서 발표한 2016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전체 가구 중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가구비율은 99.2%로 세계 1위이다. 그리고 2017년 3월 14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기업 아카마이코리아(대표 손부한)의 2016년 4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터넷 평균 속도 또한 26.1Mbps로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정종길, “한국, 인터넷 속도·보급률 12분기 연속 전 세계 1위”, 「IT데일리」 (2017년 3월 15일자), 2017년 3월 20일 접속, <http://www.itdaily.kr/news>.

터넷 기능이 결합된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다양한 정보 추구 및 욕구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각종 SNS를 통해서 낯선 사람과의 의사소통의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 이면에 SNS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중독이라는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카페인 우울증’⁵⁾과 같은 신종 증후군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현상으로서 SNS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더군다나 청소년과 대학생 집단에서 SNS 중독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⁶⁾ 그런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들 가운데 99%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를 이용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대상이 청소년에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⁷⁾ 그 가운데 기독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SNS 중독관련 연구는 전무하다고 하겠다. 최근 안영혁⁸⁾의 SNS를 통한 교육목회적 접근과 금충기와 김병곤⁹⁾의 교회 경영적 관점에서 SNS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가 있지만 중독과 관련된 연구는 실시되지 못하였음을 볼 수 있다.

성인초기인 대학생은 타인과 관계형성을 통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자

- 5) ‘카페인’이란 카카오토티리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애플자만을 따서 부르는 약자이다. 카페인 우울증은 SNS에서 자신의 일상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일상을 보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근황을 알게 되고 안부를 전하는 용도로 SNS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린 일상 사진이나 글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열등감을 느끼는 우울증을 의미한다. 이혁, “SNS에서도 경쟁. ‘카페인 우울증’ 앓고 계시나요?”, 「파이낸셜뉴스」 (2017년 2월 19일자), 2017년 2월 28일 접속, <http://www.fnnews.com/news>.
- 6) 유나 · 김승윤 · 이상민,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SNS 이용동기의 매개효과”, 한국교육치료학회, 「교육치료연구」 제8권 3호(2016): 337-350.
- 7) 오은진 · 안성아, “대학생의 정신건강, 대학생활적응, SNS 중독경향성 연구”,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제8권 1호(2017): 547-561.
- 8) 안영혁, “기독교인의 전통적 생활과 SNS의 교육목회적 결합에 관한 연구”, 「神學指南」 제321호(2014): 251-279.
- 9) 금충기 · 김병곤, “기독교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신뢰 및 지속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지」 제22권 2호(2015): 95-112.

아정체감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독립을 준비하며 대학생들의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진로를 준비하는 등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 이들의 현실적인 대인관계 문제는 자연스럽게 SNS에 더욱 집중하게 하며 이에 내현적 자기애를 매개로 더욱 영향을 미치게 된다.¹⁰⁾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 대학생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실태 파악과 문제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와 SNS 중독경향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도출함으로써 목회 및 교육현장에서 기독교대학생들을 지도하고 상담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리고 기독교대학생들이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대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원만한 인간관계기술 개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대적 도구인 SNS를 순기능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선한 도구가 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 문제는 SNS 중독경향성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대인관계 문제는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는 대인관계 문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매개변수 역할을 할 것이다.

10) 김보경·백용매·허창구, “애착과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제23권 3호(2016): 483-502.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대인관계 문제

(1) 대인관계의 개념이해

심리학자 Fritz Heider¹¹⁾는 “대인관계란 보통 두 사람 혹은 그 이상 사이의 관계로 한 인간이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가, 상대방이 자신을 무엇으로 여기고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는가, 상대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지각하는지와 어떤 행동을 하는지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상대를 대하는 하나의 현상이다” 라고 하였다.

개인은 타인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므로 대인관계능력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¹²⁾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하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신 6:5)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19:19; 22:39; 막 12:31; 12:33; 눅 10:27; 롬 13:9; 갈 5:14; 약 2:8)고 권면한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롬 15:2)고 권면하고 있다. 이는 곧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의미이다.

인간은 자신의 본능이나 욕구에 따라서만 살 수는 없고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본능이나 욕구를 자제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즉 인간은 자신의 본능이나 욕구와 사회적 혹은 문화적 규범

11) Fritz Heider,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58), 1-11.

12) H. Thurman, *The Search for Common Ground* (New York: Harper & Row, 1971), 121-127.

과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양식이 점차 성숙을 이루고 대인관계의 발달을 가져오게 된다.¹³⁾

따라서 대인관계는 각 사람사이의 심리적인 관계인 동시에 서로 협동을 추구하는 관계이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볼 수 있다.¹⁴⁾ 그러므로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2) 대인관계 문제이해

대인관계 문제는 반복되어 나타나며 특유의 방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적응적 관계패턴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된다.¹⁵⁾

부적응적 대인관계 행동 특성의 결과로 나타난 대인관계 문제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되어 연구되고 있다. Leary는 대인관계 문제를 친애와 통제라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¹⁶⁾ Horowitz는 8가지 즉, 지배성, 보복성, 냉담성, 회피성, 비주장성, 피착취성, 헌신성, 간섭성으로 구분하였다.¹⁷⁾ 그리고 Horney는 대인관계 문제에서 느끼는 불안이 신경증의 요인이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3가지 신경증적 경향성 즉,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 사람들에게 맞서는 것,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으로 구분하였다.¹⁸⁾

13) 강경미, “기독교상담과 한국인의 대인관계문화”, 180.

14) A. B. Robert & B. Donn, *Social Psychology* (Boston: Allyn and Bacon, 1987), 212.

15) M. J. Mendelson & F. E. Aboud,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in Lat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1(1999): 130–132.

16) T. Leary,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A Functional Theory and Methodology for Personality Evaluation*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1957), 235–237.

17) L. M. Horowitz,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s: A Leary Leg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no. 2(1996): 283–300.

18) K. Horney, *Our Inner Conflicts: A Constructive Theory of Neurosis* (London: Routledge, 1946), 15–17.

Sullivan¹⁹⁾은 모든 심리적인 역기능을 대인관계 과정에서 경험한 결함의 결과라고 하였다. 현대인들은 대인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서 불안이나 고독감 또는 외로움, 분노 등의 감정을 겪게 되면서 점차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²⁰⁾ 최임정²¹⁾은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정의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가 상호간에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과 대인관계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지식이나 대인관계 기술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였다. Teyber²²⁾는 인간에게 대인관계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울과 불안, 불행감 및 소외감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신경증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실제적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인관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한 손 안에서 펼쳐지는 나 혼자만의 세상인 SNS로 눈을 돌려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경향성을 띄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 긍정적이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지 못하여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라고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2) SNS 중독경향성 이해

(1) SNS 중독경향성 개념

중독이란 일반적으로 중독의 대상이 되는 무언가에 의해 ‘조절 능력

19) H. S. Sullivan,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 W. Norton, 1953), 213-216.

20) Harold Koontz & Heinz Weirich, *Essentials of Management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7th ed.(New Delhi: Tata McGrawHill, 2008), 291.

21) 최임정 · 심혜숙, “대학생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2권 2호 (2009): 479-492.

22) E. Teyber,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A Relational Approach*, 4th ed.(Boston: Brooks Cole, 2000), 109-111.

상실, 내성에 따른 지속적인 사용증가, 금단 증상, 강박적 집착 또는 의존' 등 문제의 징후가 나타나서 신체적·사회적·직업적·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를 뜻한다.²³⁾ 특히 중독은 그 어원에서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찾아볼 수 있는데 '중독(addic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addicene'에서 유래했다. 이는 원래 '동의, 굴복, 양도하다'라는 의미를 포함²⁴⁾하며 특히 고대시대에 잡혀 감금되거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노예가 된 사람을 뜻한다.²⁵⁾

심리적으로 중독의 진정한 다섯 가지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²⁶⁾ 첫째, 중독대상을 끊임없이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갈망 그 자체이다. 둘째, 가질 수 없으면 스트레스의 반응이 나타난다. 셋째, 중독행위를 계속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한다. 넷째, 결심만 한다면 스스로의 의지로 중독행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다섯째, 중독행위는 계속해서 행위자의 사고와 의식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파고든다.

성경적 관점에서 중독을 살펴보면 중독은 마치 우상숭배와 같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중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이다(출 20:3; 신 5:7). 이러한 맥락에서 중독현상을 바라보면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헛된 중독대상으로 가득 채워져, 매순간 그 중독대상에 개인의 의식이 매달려 있다면 이는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것이다. 인간은 더 사랑하는 것에 마음과 물질을 쏟기 마련이다. 출애굽기 34장에서와 같이 여호와와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 거하길 원하신다(출 34:14). 즉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주인의 자리에 중독대상

23) 오윤선·김미숙,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이론과 실제』(과주: 양성원, 2017), 308.

24)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중독에 관한 연구”, 『2008 정책연구』(2008): 2.

25) A. D. Hart, *Healing Life's Hidden Addictions*, 온누리 회복사역부 역, 『참을 수 없는 중독』(서울: 두란노, 2005), 18.

26) G. G. May, *Addiction and Grace*, 이지영 역, 『중독과 은혜』(서울: IVP, 2005), 73.

이 앉아있는 상태를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SNS 중독은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SNS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는 상태이며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²⁷⁾ SNS 중독은 의학적으로 보통 ‘관계중독’으로 이해한다. 관계중독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야말로 ‘관계’에 매달리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자신의 게시물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다가 결국은 그 ‘반응’을 더욱 자주, 많이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SNS를 계속 생각하고 세밀한 것까지도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최근 SNS중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SNS 과다사용에 대해서 SNS 중독경향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²⁸⁾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SNS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개념으로 SNS 중독경향성을 사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SNS 중독 경향성의 조작적 정의로는 SNS 집착 및 금단증상, SNS 과잉의사소통과 몰입,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로 규정하였다.

(2) SNS 중독 실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보급과 더불어 SNS의 이용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SNS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²⁹⁾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³⁰⁾에서 스마트폰 보유율을 살펴보면 만6세 이상 인구 10명 중 8명(85.0%)이 스마트폰을 보유하

27)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보고서”, 정책보고서(2015년 6월), 2017년 2월 20일 접속, <http://www.nia.or.kr>.

28) 박미향 · 김정숙 · 함경애, “대학생의 성격 5요인과 자아존중감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활심리학회, 「재활심리연구」 제21권 2호(2014): 189-206.

29) 이현주 · 김혜경, “대학생의 SNS 중독 및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지」 제16권 6호(2015): 3944-3953.

30)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 정책보고서(2016년 3월) 2017년 3월 28일 접속, <https://www.nia.or.kr>.

고 있다. 연령별 보유율을 살펴보면 20대가 2015년과 2016년 모두 99.9%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만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SNS 이용률은 65.2%로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015년에 89.0%, 2016년에는 91.5%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SNS는 참여와 공유, 개방이라는 긍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사용과 영향력이 증가됨에 따라 부정적 측면의 사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³¹⁾ 대표적으로 SNS 중독과 대화 단절, 사생활 침해, 무분별한 정보의 확산, 다른 활동에 대한 흥미 감소, 시력저하, 수면 부족 등이 있다.³²⁾ 특히 SNS 중독 문제 중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확인하려는 욕구는 담배나 술의 중독성보다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SNS 중독은 다른 중독처럼 뇌에 영향을 미쳐 도파민 생성을 도와서 알콜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과 같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이 취약하다.³³⁾ SNS 중독으로 인해 학생들은 자기 일에 소홀하게 되며 학업 효율의 떨어짐과 시간 관리의 어려움 등 개인의 적응 및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³⁴⁾

SNS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대부분 피상적인 관계를 통해 더 큰

31) 강현욱, “대학생의 SNS 중독성향과 사회적 지지, 외로움, 건강지각, 대인관계의 관계와 신체활동을 통한 치료 레크레이션 적용”, 한국체육과학회,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2권 1호(2013): 121-133.

32) 우공선, 강재원, 이동형,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이용 충족, 의존, 그리고 문제적 이용 : 트위터(Twitter)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제28권 4호(2011): 89-127.

33) 고은혜·배상률,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SNS 이용행태 및 부모중재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제23권 6호(2016): 451-472.

34) W. Hofmann, K. D. Vohs, & R. F. Baumeister, “What People Desire, Feel Conflicted about, and try to Resist in Everyday Life,” *Psychology Science* 26, no. 6(2012): 582-588.

35) 이종연, “대학에서 SNS를 활용한 학습 커뮤니케이션 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학회, 「사회과학연구학회지」 제25권 1호(2012): 93-123.

외로움이나 우울 등의 정신건강 손상의 우려도 보고되고 있다.³⁵⁾ 그리고 SNS의 사용이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대신하여 대화의 단절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가족끼리 오가는 대화가 없어지고 친구를 만나도 스마트폰을 바라보기만 하는 등 직접적 대인관계 의사소통은 줄어들고 피상적인 대인관계만 늘어나게 된다.³⁶⁾

3) 내현적 자기에 이해

(1) 내현적 자기에 개념

나르시시즘(Narcissism) 즉, 자기에(self-love, 自己愛)는 자기 자신의 행위나 특질에 부당하게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의 성격을 가리킨다.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2013)에서는 자기를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의 하나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진단기준을 따르고 있다.³⁷⁾

〈표 1〉 DSM-5 자기에성 성격장애 진단기준

| |
|--|
| 과대성(공상 또는 행동상), 숭배의 요구, 감정이입의 부족이 광범위한 양상으로 있고 이는 청년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5가지(또는 그 이상)로 나타난다. |
| 1.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한 느낌을 가짐(예, 성취와 능력에 대해서 과장한다. 적절한 성취 없이 특별대우 받기를 기대한다) |
| 2. 무한한 성공, 권력, 명석함,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과 같은 공상에 몰두함 |
| 3. 자신의 문제는 특별하고 특이해서 다른 특별한 높은 지위의 사람(또는 기관)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는 관련해야 한다는 믿음 |

36) 최현석 · 이현경 · 하정철,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K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3권 5호(2012): 1005-1101.

37)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권준수 외 공역,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서울: 학지사, 2013), 730-731

4. 과도한 숭배를 요구함
5.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즉, 특별히 호의적인 대우를 받기를, 자신의 기대에 대해 자동적으로 순응하기를 불합리하게 기대한다)
6. 대인관계에서 착취적임(즉,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한다)
7. 감정이입의 결여: 타인의 느낌이나 요구를 인식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음
8. 다른 사람을 자주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시기하고 있다고 믿음
9. 오만하고 건방진 행동이나 태도

자기애는 오랜 기간에 걸쳐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개념화된 것이라기 보다는 문학 혹은 예술 분야에서 은유적으로 많이 쓰이던 개념으로³⁸⁾ 심리학 분야에서는 1899년 독일의 정신의학자 Wilhelm Nacke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Nacke는 성의학자 Havelock Ellis가 나르키소스(Νάρκισσος, Narcissus)신화³⁹⁾에 근거하여 자기사랑을 병리적 현상으로 보고한 내용에 대한 논평 과정에서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⁴⁰⁾ 그리고 Freud가 그의 저서 『*On Narcissism*(나르시시즘에 관하여)』에서 자기애를 ‘자기 자신에 대한 리비도(Libido)의 몰입’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자기애에 대한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⁴¹⁾ Freud 이후부터 다양한 학

38) 강선희·정남운,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4호(2002): 970.

39) Νάρκισσος(Narcissus)는 그리스 신화의 등장인물이다.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 등에 등장한다. 나르키소스라는 낱말은 “잠(sleep) 또는 무감각(numbsness)”을 의미한다. 나르시시즘(Narcissism)은 미소년 나르키소스(Narcissus)에 어원을 두고 있다.

40) L. A. Rivas, “Controversial Issues in the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3(2001): 22–25.

41) S. Freud,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in *Essential Papers on Narcissism*, ed. A. P. Morrison(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8), 17–43; 오윤선, “자기애적 성격성향 신학생의 집단교육상담 프로그램효과”, 39에서 재인용.

자들이 자기애를 연구하였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정의도 내려지게 되었다.

Heinz Kohut은 자기애를 자신에게 리비도(Libido)가 투자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자기애를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거나 병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최초의 행복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완전한 자기, 즉 '자기애적 자기'의 창조를 통해 이루어간다고 보았다.⁴²⁾

Akhtar와 Thomson⁴³⁾은 자기애가 자기개념과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적 적응, 윤리와 규범 및 이상, 사랑과 성, 인지양식 이상 여섯 가지 영역에서 결합이 있는데 이를 외현적인 것과 내현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Wink는 자기애 개념을 내현적과 외현적 유형으로 나누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⁴⁴⁾ 외현적 자기애는 자기애 요소들을 다른 사람도 충분히 관찰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에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 모습과 같이 자기애 요소들이 외적으로 절대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자기애 요소의 활발한 움직임과 심리적인 기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어 지배욕이나 착취 성향을 속으로 감추고 있지만 타인으로 부터 인정받고 세상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상태라고 규정한다.

(2) 내현적 자기애 특징

내현적 자기애는 거대자기 환상을 비롯하여 특권의식, 자만심, 자기 방종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⁴⁵⁾ 내현적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심리기저에 있는 자기애 성향을 제대로 표출하지

42) M. Allen Siegal, *Heinz Kohut and the Psychology of the Self*, 권명수 역, 『하인즈 코헷과 자기 심리학-온전한 치유에의 길-』(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98-100.

43) S. Akhtar & J. A. Thomson,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982): 12-20.

44) P. Wink,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no.4(1991): 590-597.

못하고 특수한 행동장애 증상을 보이기에 약물이나 도박, 게임 등에 중독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⁴⁶⁾ 이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평가에도 민감하다. 그 이유는 이들의 거대자기 환상이 안정적으로 높은 자존감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받아야만 하는 불안정한 형태의 자존감이기 때문이다.⁴⁷⁾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쉽게 상처를 받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에서만 과시적이고 광대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거대자기 환상이 보통 무의식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⁴⁸⁾ 이들의 평소 모습을 살펴보면 대개 우울하고 불안하며 과도하게 예민하다. 또한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은 모습을 보이며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고 자신이 무리의 주목을 받는 것을 불편해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혹은 싫어하는지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사소한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잘 입고 수치심도 잘 느낀다. 그래서 자신이 비난을 받을만한 상황이나 창피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되도록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⁴⁹⁾ 이들이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관점은 자신을 받아주고 좋아해 주는 존재로만 인식⁵⁰⁾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착취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자기중심적인 자기애 특징을 잘 나타낸다. 또한 다른 사람을 자신에게 끊임없는 인정과 존경할 것을 하도록 요구하여 자신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유지시키는 존재⁵¹⁾로만 인식한다.

46) 김선미·서경현,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경험회피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20권 3호(2015): 587-603.

47) 한수정·권석만, “자기애자의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지각적 민감성”,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9권 4호(2010): 1136.

48) 김선미·서경현,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589-602.

49) 권석만·한수정,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2000), 52.

50) 유영권, 『기독교상담학: 영역 및 증상별 접근』 (서울: 학지사, 2008), 179.

51) 한수정·권석만, “자기애자의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지각적 민감성”, 1136.

(3) 내현적 자기애의 성격적 이해

현대인의 10명 중 1명 정도가 자기애 성격장애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⁵²⁾ 병적인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발견된다.⁵³⁾ 오윤선⁵⁴⁾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병적자기애 특히 내현적 자기애들의 증가추세를 알 수 있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정서적 교감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고독감을 느끼고 외면당하기 쉽다.

사도바울은 말세의 현상 중 하나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딤후 3:1-2)”라고 병적 자기애를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한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때 자신을 고통 속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⁵⁾ 사람은 결국 본인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장 자신을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따라서 병리적 자기애가 아닌 건강한 자기부인(마 16:24; 막 8:34; 눅 9:23)을 통해 온 세상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는 삶이 되어야 한다(갈 2:20). 그리고 관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는 사랑이신 하나님(요일 4:8)을 진정으로 만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성경에

52) J. M. Twenge & W. K. Campbell, *The Narcissism Epidemic: Living in the Age of Entitlement* (New York: Free Press, 2009), 45-67.

53) 김달성, 『교회에서 신을 만드는 사람들』 (고양: 좋은땅, 2014), 130.

54) 오윤선, “자기애적 성격성향 신학생의 집단교육상담 프로그램효과”, 36-61.

55) 김달성, 『교회에서 신을 만드는 사람들』, 132.

서는 인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요 15:6-27)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참 제자의 삶(요 15:12; 요 13:35)을 살 수 있다고 권면한다.⁵⁶⁾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및 대상

본 연구에는 기독교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고찰하기 위해서 조사연구 방법이 적용되었다. 본 조사는 2017년 2월 10일 부터 3월 10일까지 1개월 간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기독교대학생과 교회 대학부 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불성실 응답자 및 누락 대상자를 제외한 뒤 318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결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성별은 남자가 139명(33.1%), 여자가 179명(66.9%)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은 19세에서 28세($M=21.45$, $SD=2.50$)까지 분포되어있다. 셋째, 가족형태는 두 부모 가정이 266명(83.65%), 한 부모 가정이 37명(11.63%), 재혼가정이 6명(1.89%), 조손부모 가정이 3명(0.94%), 혼합 가정이 6명(1.89%)이다. 넷째, 신앙연수는 모태신앙이 156명(49.06%), 1년 미만인 27명(8.49%), 1년-5년이 46명(14.47%), 5년-10년이 14명(4.40%), 10년 이상이 75명(23.58%)이다. 다섯째, 가족 내 신앙생활 환경은 혼자만 믿음이 54명(16.98%), 온 가족 믿음이 170명(53.46%), 3대 이상 믿음이 13명(4.09%), 나와 부모님 중 한 분만 믿음이 59명(18.55%), 기타가 22명(6.92%)이다. 여섯째, SNS 사용여부는 318명(100%)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SNS 이용기간은 6개월 이내가 40명(12.58%), 6개월-1년 이내가 11명(3.46%), 1년-2년 이내가 13명

56) 오윤선, “자기애적 성격성향 신학생의 집단교육상담 프로그램 효과”, 43-44.

(4.09%), 2년-3년 이내가 33명(10.38%), 3년 이상이 221명(69.49%)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SNS 평균 접속률은 매일이 271명(85.22%), 주 5회 이상은 26명(8.18%), 주 3회 이상은 15명(4.72%), 주 1회 이상은 3명(0.94%),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3명(0.94%)이다. 여덟째, SNS 내 인맥수는 20명 내외가 11명(3.46%), 50명 내외는 24명(7.55%), 100명 내외는 46명(14.46%), 150명 내외는 56명(17.61%), 200명 내외는 81명(25.47%), 그 외는 100명(31.4%)으로 응답하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

(1) 대인관계 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홍상황 등⁵⁷⁾이 개발한 대인관계 문제검사 원형척도 단축형(KIIP-SC)을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이며 하위요인으로는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가 있으며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홍상황 등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의 범위는 .61-.89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총 내적 일치도가 .865로 나타났다.

(2) SNS 중독경향성

본 연구에서는 SNS의 중독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소영, 김종남⁵⁸⁾이 개발한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조절 실패 및 일상생활장애(7문항), 몰입 및 내성(7문항), 부정 정서의 회피(5문항),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5문항) 4개의 하위요인과 24문항으로

57) 홍상황 외,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검사 원형척도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1권 4호(2002): 923-940.

58) 정소영 · 김종남,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9권 1호(2014): 147-166.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4점 Likert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소영, 김종남의 연구에서 총 내적 일치도 계수는 .92,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84, 몰입 및 내성 .80, 부정 정서의 회피 .81,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7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총 내적 일치도는 .896으로 나타났다.

(3) 내현적 자기애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Akhtar와 Thomson⁵⁹⁾의 '자기애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기초로 강선희와 정남운⁶⁰⁾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3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형 척도이다. 점수 범위는 45점에서 2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격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강선희와 정남운의 연구에서 총 내적 일치도 계수는 .91, 목표불안정 .92, 인정욕구 .82, 착취 및 자기중심성 .78, 과민취약성 .84, 소심자신감부족 .80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총 내적 일치도는 .809로 나타났다.

<표 2> 측정도구

| 하위요인 | | 측정내용 | 문항수 | Cronbach's α |
|----------------|--------|--------------------|-----|---------------------|
| 대인 관계 문제 | 통제지배 | 19, 21, 27, 30, 33 | 5 | .782 |
| | 자기중심성 | 6, 7, 10, 13, 22 | 5 | .833 |
| | 냉담 | 2, 8, 9, 15, 18 | 5 | .772 |
| | 사회적 억제 | 4, 12, 17, 31, 36 | 5 | .801 |
| | 비주장성 | 1, 3, 5, 11, 16 | 5 | .894 |
| | 과순응성 | 14, 23, 34, 37, 39 | 5 | .812 |
| | 자기희생 | 20, 24, 25, 32, 40 | 5 | .733 |
| | 과관여 | 26, 28, 29, 35, 38 | 5 | .709 |
| 소계 | | | 40 | .865 |

59) Akhtar & Thomson,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12-20.

60) 강선희·정남운,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969-990.

| | | | | |
|------------------|---------------|-------------------------------------|----|------|
| SNS 중독 경향성 |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 4, 10, 14, 17, 20, 22, 24 | 7 | .844 |
| | 몰입 및 내성 | 1, 5, 9*, 15, 18, 21, 23 | 7 | .790 |
| | 부정정서의 회피 | 3, 8, 11, 16, 19 | 5 | .802 |
| |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 2, 6, 7, 12, 13 | 5 | .830 |
| | 소계 | | 24 | .896 |
| 내현적 자기애 | 목표불안정 | 5, 15, 20*, 23, 29, 30, 37*, 42, 44 | 9 | .915 |
| | 인정욕구 | 2, 6, 7, 13, 17, 24, 33, 38, 43 | 9 | .837 |
| | 착취 및 자기중심성 | 4, 9, 11, 12, 16, 22, 27, 35, 45 | 9 | .811 |
| | 과민취약성 | 3, 8, 10, 14, 19, 25, 26, 31, 36,40 | 10 | .871 |
| | 소심자신감부족 | 1, 18, 21, 28, 32, 34*, 39, 41 | 8 | .816 |
| | 소계 | | 45 | .809 |

*역채점 문항

3) 자료분석의 기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Version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인관계 문제가 SNS중독성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등을 실시하였고 통계의 유의확률은 5%이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가 SNS중독성향성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체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해서 매개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분석 및 해석

- 1) 대인관계 문제와 SNS 중독경향성, 내현적 자기애 간의 상관분석
기독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문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내현

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먼저 기술통계 및 Pearson의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관계 문제는 인정욕구($r=.477, p<.01$), 착취 및 자기중심성($r=.414, p<.01$), 소심 및 자신감부족($r=.661, p<.01$), 목표불안정($r=.542, p<.01$), 과민취약성($r=.655, p<.01$), SNS 중독경향성($r=.347, p<.01$)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SNS 중독경향성은 인정욕구($r=.416, p<.01$), 착취 및 자기중심성($r=.296, p<.01$), 소심 및 자신감부족($r=.323, p<.01$), 목표불안정($r=.392, p<.01$), 과민취약성($r=.457, p<.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인관계 문제와 SNS 중독경향성, 내현적 자기애 간의 상관분석(N=318)

| 변인 | 1 | 2 | 3 | 4 | 5 | 6 | 7 |
|---------------|--------|--------|--------|--------|--------|--------|-------|
| 1. 대인관계 문제 | 1 | | | | | | |
| 2. 인정욕구 | .477** | 1 | | | | | |
| 3. 착취 및 자기중심성 | .414** | .522** | 1 | | | | |
| 4. 소심 및 자신감부족 | .661** | .345** | .125 | 1 | | | |
| 5. 목표불안정 | .542** | .352** | .280** | .533** | 1 | | |
| 6. 과민취약성 | .655** | .642** | .434** | .679** | .626** | 1 | |
| 7. SNS 중독경향성 | .347** | .416** | .296** | .323** | .392** | .457** | 1 |
| M | 90.22 | 3.01 | 2.03 | 2.85 | 2.56 | 2.70 | 42.88 |
| SD | 20.47 | .69 | .63 | .72 | .79 | .76 | 11.64 |

** $p<.01$

2) 대인관계 문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검증

대인관계 문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인정욕구, 착취 및 자기중심성, 소심 및 자신감부족, 목표불안정, 과

민취약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⁶¹⁾의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대인관계 문제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정욕구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문제가 매개변인인 인정욕구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beta=.477, p<.001$), 종속변인인 SNS 중독경향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47, p<.001$).

<표 4> 대인관계 문제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검증

| 단계 | 모형 | B | SE | β | t | $R^2(Adj-R^2)$ | ΔR^2 |
|----|----------------------------|-------|-------|---------|----------|----------------|--------------|
| 1 | 대인관계 문제 → 인정욕구(a) | .016 | .003 | .477 | 5.845*** | .228(.221) | |
| 2 | 대인관계 문제 → SNS 중독경향성(c) | .197 | .050 | .347 | 3.980*** | .120(.113) | |
| 3 | 대인관계 문제 → SNS 중독경향성(c') | .109 | .054 | .192 | 2.022*** | .202(.188) | .082 |
| | 인정욕구 → SNS 중독경향성(b) | 5.425 | 1.584 | .325 | 3.428*** | | |
| 1 | 대인관계 문제 → 착취 및 자기중심성(a) | .013 | .003 | .414 | 4.894*** | .171(.164) | |
| 2 | 대인관계 문제 → SNS 중독경향성(c) | .197 | .050 | .347 | 3.980*** | .120(.113) | |
| 3 | 대인관계 문제 → SNS 중독경향성(c') | .154 | .054 | .270 | 2.861*** | .148(.133) | .028 |
| | 착취 및 자기중심성 → SNS 중독경향성(b) | 3.379 | 1.734 | .184 | 1.949*** | | |
| 1 | 대인관계 문제 → 소심 및 자신감 부족(a) | .023 | .002 | .661 | 9.489*** | .437(.432) | |
| 2 | 대인관계 문제 → SNS 중독경향성(c) | .197 | .050 | .347 | 3.980*** | .120(.113) | |
| 3 | 대인관계 문제 → SNS 중독경향성(c') | .134 | .066 | .236 | 2.046*** | .136(.121) | .016 |
| | 소심 및 자신감 부족 → SNS 중독경향성(b) | 2.678 | 1.855 | .167 | 1.444*** | | |

61) R. M. Baron &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986): 1173-1182.

| | | | | | | | |
|---|----------------------------|-------|-------|------|----------|------------|------|
| 1 | 대인관계 문제 → 목표불안정(a) | .021 | .003 | .542 | 6.943*** | .294(.287) | |
| 2 | 대인관계 문제 → SNS 중독경향성(c) | .197 | .050 | .347 | 3.980*** | .120(.113) | |
| 3 | 대인관계 문제 → SNS 중독경향성(c') | .108 | .057 | .190 | 1.892*** | .179(.165) | .059 |
| | 목표불안정? SNS 중독경향성(b) | 4.234 | 1.477 | .289 | 2.873*** | | |
| 1 | 대인관계 문제 → 과민취약성(a) | .025 | .003 | .655 | 9.329*** | .429(.424) | |
| 2 | 대인관계 문제 → SNS 중독경향성(c) | .197 | .050 | .347 | 3.980*** | .120(.113) | |
| 3 | 대인관계 문제 → SNS 중독경향성(c') | .047 | .062 | .083 | .759*** | .213(.199) | .093 |
| | 과민취약성 → SNS 중독경향성(b) | 6.114 | 1.662 | .403 | 3.678*** | |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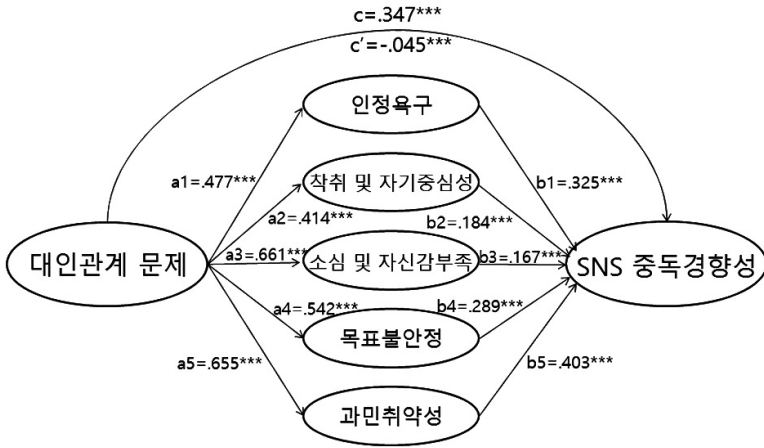
또한 대인관계 문제와 인정욕구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SNS 중독경향성의 β 값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졌으므로($\beta = .192, p < .001$) <그림 1>과 같이 인정욕구는 대인관계 문제와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 문제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착취 및 자기중심성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문제가 매개변인인 착취 및 자기중심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beta = .414, p < .001$), 종속변인인 SNS 중독경향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47, p < .001$). 또한 대인관계 문제와 착취 및 자기중심성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SNS 중독경향성의 β 값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졌으므로($\beta = .270, p < .001$) <그림 1>과 같이 착취 및 자기중심성은 대인관계 문제와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 문제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심 및 자신감부족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문제가

매개변인인 소심 및 자신감부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beta=.661$, $p<.001$), 종속변인인 SNS 중독경향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47$, $p<.001$). 또한 대인관계 문제와 소심 및 자신감부족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SNS 중독경향성의 β 값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졌으므로($\beta=.236$, $p<.001$) <그림 1>과 같이 소심 및 자신감부족은 대인관계 문제와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 문제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목표불안정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문제가 매개변인인 목표불안정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beta=.542$, $p<.001$), 종속변인인 SNS 중독경향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47$, $p<.001$). 또한 대인관계 문제와 목표불안정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SNS 중독경향성의 β 값이 유의미한 수준이 나타났다($\beta=.190$, $p<.001$). <그림 1>과 같이 목표불안정은 대인관계 문제와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 문제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과민취약성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문제가 매개변인인 과민취약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beta=.655$, $p<.001$), 종속변인인 SNS 중독경향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47$, $p<.001$). 또한 대인관계 문제와 과민취약성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SNS 중독경향성의 β 값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졌으므로($\beta=.083$, $p<.001$) <그림 1>과 같이 과민취약성은 대인관계 문제와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III. 닫는 글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와 SNS 중독경향성의 실태를 파악하여 목회와 교육의 현장에서 활용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대학교 및 지역교회의 기독교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문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와 매개하는 변인으로는 내현적 자기애를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와 SNS 중독경향성, 내현적 자기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 문제는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 변인인 인정욕구, 착취 및 자기중심성, 소심 및 자신감부족,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욕구($r=.477$, $p<.01$), 착취 및 자기중심성($r=.414$, $p<.01$), 소심 및 자신감부족($r=.661$, $p<.01$), 목표불안정($r=.542$, $p<.01$), 과민취약성($r=.655$, $p<.01$), SNS 중

독경향성($r=.347, p<.01$)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대인관계 문제가 높아질수록 인정욕구, 착취 및 자기중심성, 소심 및 자신감부족,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도 높아지고 SNS 중독경향성도 높아진다. 실제적인 사람 대 사람의 대인관계에서 점점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실질적인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가상 속 자신만의 공간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⁶²⁾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가 높아질수록 SNS 중독경향성도 높아진다는 것도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김보경, 백용매, 허창구의 연구¹⁰⁾와 안주아의 연구⁶³⁾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는 기독교대학생들이 여러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인관계 문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SNS 중독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기독교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와 SNS 중독경향성의 영향력을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 문제는 SNS 중독경향성($\beta=.347, p<.001$) 회귀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회귀모형은 F값이 15.842로 유의수준 .001에서 대인관계 문제가 SNS 중독경향성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R^2 가 .120으로 1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대인관계 문제가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의 정도도 높아지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의미한다.

셋째, 기독교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변인인 인정욕구, 착취 및 자기중심성, 소심 및 자신감부족,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모두가 대인관계 문제가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착취 및 자기중심

62) 안주아,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형태와 중독: 우울, 충동성이 중독에 미치는 영향 및 중독이 대인관계와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언론학회, 「언론과학연구」 제16권 4호(2016): 137-138, 128-162.

63) 안주아,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형태와 중독”, 128-162.

성($\beta=.270, p<.001$), 소심 및 자기중심성($\beta=.236, p<.001$), 인정욕구($\beta=.192, p<.001$), 목표불안정($\beta=.190, p<.001$), 과민취약성($\beta=.083, p<.001$) 순으로 간접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정구철, 문중호의 연구,⁴⁵⁾ 김선미, 서경현의 연구⁴⁶⁾ 와 같이 통계적으로 아주 높은 유의미한 결과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기독교대학생과 서울시 소재 교회의 대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이 연구의 결과를 전체 기독교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비기독교대학생과 기독교대학생의 비교를 통하여 기독교대학생의 현주소를 더욱 정확히 알아보는 연구와 연구주제와 관련된 더욱 심층적인 질적연구 역시 요구된다. 그리고 앞으로 기독교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개발하고 시행하거나 활발한 상담교육이 교회와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더욱 요구된다.

또한 SNS 중독은 기독교대학생에게도 충분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점차 교회 내에서도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교회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그네의 어려움을 모르는 척 하지 않고 도와준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나 학교보다 특히 교회에 기독교 관점으로 대인관계 문제와 중독을 다루는 교육이 더욱 요구된다. 더불어 ‘혼자’의 문화가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대학생들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의 말씀을 실천하여 혼자가 아닌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독교대학생으로서의 정체감 확립에 관한 교육 또한 요구된다.

【 참고문헌 】

- 강경미. “기독교상담과 한국인의 대인관계문화”.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5권 (2008): 179-205.
- 강선희 · 정남운.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4호(2002): 969-990.
- 강현욱. “대학생의 SNS 중독성향과 사회적 지지, 외로움, 건강지각, 대인관계의 관계와 신체활동을 통한 치료 레크레이션 적용”. 한국체육과학회.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2권 1호(2013): 121-133.
- 고은혜 · 배상률.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제23권 6호 (2016): 451-472.
- 권석만 · 한수정.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2000.
- 금충기 · 김병곤. “기독교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신뢰 및 지속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지」 제22권 2호(2015): 95-112.
- 김달성. 『교회에서 신을 만드는 사람들』. 고양: 좋은땅, 2014.
- 김보경 · 백용매 · 허창구. “애착과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 효과”.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제23권 3호 (2016): 483-502.
- 김선미 · 서경현.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20권 3호(2015): 587-603.
- 김성희 · 박경희. “대학상담: 대학생 대인관계조화 프로그램 개발”. 한국상담학회. 「상담연구」 제11권 1호(2010): 375-393.
- 박미향 · 김정숙 · 함경애. “대학생의 성격 5요인과 자아존중감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활심리학회. 「재활심리연구」 제21권 2호 (2014): 189-206.
- 서양근대철학회. 『서양근대철학의 열 가지 쟁점』. 파주: 창비, 2004.
- 안영희. “기독교인의 전통적 생활과 SNS의 교육목회적 결합에 관한 연구”. 「神學指南」 제321호(2014): 251-279.

- 안주아.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형태와 중독: 우울, 충동성이 중독에 미치는 영향 및 중독이 대인관계와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언론학회. 「언론과학연구」 제16권 4호(2016): 128-162.
- 오윤선·김미숙.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이론과 실제』. 파주: 양성원, 2017.
- 오윤선. “자기애적 성격성향 신학생의 집단교육상담 프로그램 효과”.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0권(2013): 36-61.
- 오윤선. 『힐링과 행복코칭』. 서울: 예영B&P, 2014.
- 오은진·안성아. “대학생의 정신건강, 대학생활적응, SNS 중독경향성 연구”.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제8권 1호(2017): 547-561.
- 우공선·강재원. “이동형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이용 충족, 의존, 그리고 문제적 이용: 트위터(Twitter)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회보」 제28권 4호(2011): 89-127.
- 유나·김승윤·이상민.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SNS 이용동기의 매개효과”. 한국교육치료학회. 「교육치료연구」 제8권 3호(2016): 337-350.
- 유영권. 『기독교상담학: 영역 및 증상별 접근』. 서울: 학지사, 2008.
- 윤현철. 『중독치유 해답이 있다』. 서울: 도서출판 아바, 2013.
- 이윤희. “국내 SNS의 이용 현황과 주요 이슈 분석”. 한국인터넷진흥원. 「Internet & Security Focus」 제4권(2014): 56-78.
- 이종연. “대학에서 SNS를 활용한 학습 커뮤니케이션 사례연구”.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학회지」 제25권 1호(2012): 93-123.
- 이현주·김혜경. “대학생의 SNS 중독 및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6호(2015): 3944-3953.
- 정구철·문중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9호(2015): 146-156.
- 정구철·문중호.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2014): 388.
- 정소영·김종남.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9권 1호(2014): 147-166.
- 최임정·심혜숙. “대학생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 문제

- 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2권 2호(2009): 479-492.
- 최현석 · 이현경 · 하정철.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3권 5호(2012): 1005-1101.
- 학원복음화협의회. “청년대학생, 그들은 누구인가-제2차 한국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총평”. 「물근원을 맑게」 (2009): 8-20.
- 한수정 · 권석만. “자기애자의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지각적 민감성”.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9권 4호(2010): 1135-1143.
- 홍상황 · 박은영 · 김영환 · 권정혜 · 조용래 · 진유경.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검사 원형척도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1권 4호(2002): 923-940.
- Akhtar, S. & J. A. Thomson.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982):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SM-5*. 권준수 외 역.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서울: 학지사, 2013.
- Baron, R. M. &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986): 1173-1182.
- Freud, S.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In *Essential Papers on Narcissism*. Ed. A. P. Morris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8.
- Gerald G. May. *Addiction and Grace*. 이지영 역. 『중독과 은혜』. 서울: IVP, 2005.
- Hart, Archibald D. *Healing Life's Hidden Addictions*. 온누리 회복사역부 역. 『참을 수 없는 중독』. 서울: 두란노, 2005.
- Heider, F.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58.
- Hofmann, W. K., D. Vohs, & R. F. Baumeister. “What People Desire, Feel Conflicted about, and try to Resist in Everyday Life.” *Psychology Science* 26, no. 6(2012): 582-588.
- Horney, K. *Our Inner Conflicts: A Constructive Theory of Neurosis*. London:

Routledge, 1946.

- Horowitz, L. M.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s: A Leary Leg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no.2(1996): 283-300.
- Kirschner, P. A. & A. C. Karpinski. "Facebook and Academic Performanc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 no. 6(2010): 1237-1245.
- Koontz, H. & H. Weihrich. *Essentials of Management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7th ed. New Delhi: Tata McGrawHill, 2008.
- Leary, T.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A Functional Theory an Methodology for Personality Evaluation*.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1957.
- Mendelson, M. J. & F. E. Aboud.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in Lat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1(1999):130-132.
- Rivas, L. A. "Controversial Issues in the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3(2001): 22-25.
- Robert, A. B. & B. Donn. *Social Psychology*. Boston: Allyn and Bacon, 1987.
- Seligman, Linda & Lourie W. Reichenberg. *Theories and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김영혜 외 공역. 『상담 및 심리치료의 이론: 제4판』.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5.
- Siegel, Allen M. *Heinz Kohut and the Psychology of the Self*. 권명수 역. 『하인즈 코헛과 자기 심리학-온전한 치유에의 길-』.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2000.
- Sullivan, H. S.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 W. Horton, 1953.
- Teyber, E.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A Relational Approach*. 4th ed. Boston: Brooks Cole, 2000.
- Thurman, H. *The Search for Common Ground*. New York: Harper & Row, 1971.
- Twenge, J. M. & W. K. Campbell. *The Narcissism Epidemic: Living in the Age of Entitlement*. New York: Free Press, 2009.
- Wink, P.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no. 4(1991): 590-597.

-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보고서”. 정책보고서(2015년 6월). 2017년 2월 20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www.nia.or.kr>.
-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 정책보고서(2016년 3월). 2017년 3월 28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www.nia.or.kr>.
- 이 혁. “SNS에서도 경쟁. ‘카페인 우울증’ 앓고 계시나요?”. 「파이낸셜뉴스」(2017년 2월 19일자). 2017년 2월 28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www.fnnews.com/news>.
- 정종길. “한국, 인터넷 속도 · 보급률 12분기 연속 전 세계 1위”. 「IT데일리」(2017년 3월 15일자). 2017년 3월 20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www.itdaily.kr/news>.
- 한지훈.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첫 50% 돌파...한국은 85%”. 「연합뉴스TV」(2017년 2월 8일자). 2017년 3월 3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www.yonhapnews.co.kr>.

【 Abstract 】

**Influence of Interpersonal Problems on the SNS
Addiction Proneness i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
Mediating Effect of Covert Narcissism**

Yoon Sun Oh & A Ram Choi

Korean Bibl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covert narcissism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and SNS addiction proneness. And the study seeks to provide basic data for teaching and counseling at the ministry and educational sites. It was conducted to measure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problems, and SNS addiction proneness from 318(139 male, 179 female)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Using SPSS WIN 21.0,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mediation regression analysis presented by Baron & Kenny were conducted. The analyzed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terpersonal proble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NS addiction proneness. Second, interpersonal problems directly affect SNS addiction proneness. Third, All lower variables(need for recognition, exploitation and egocentrism, lack of confidence, goal instability, sensitiveness vulnerability) of covert narcissism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 and SNS addiction proneness. Namely Interpersonal problem had indirect effects SNS addiction proneness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lower variables of covert narcissis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not dissimilar to the results of the preceding study of general university students.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explored in relation to the importance of interpersonal problems and SNS addiction proneness. Finally, limitations of the study,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extensive qualitative research and research programs should be conducted.

Key words: Christian university student, interpersonal problem, SNS addiction proneness, covert narcissism, mediated effect